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녀시대 유리, '소시탐탐'서 완전체로 매력 뽐뽐


'소녀시대' 유리. JTBC

2007년 8월 싱글 앨범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한 소녀시대는 K- POP 한류를 이끈 대표 걸그룹이다. '소녀시대' 'Gee' 'Run Devil Run' '훗' '소원을 말해봐' 'Oh!' 'Party' 등 여러 히트곡을 냈다.

처음에는 9인조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2014년 제시카가 팀을 탈퇴한 뒤 유리, 태연, 써니, 티파니, 효연, 수영, 윤아, 서현 8인 체제로 활동 중이다.

2007년 SBS 인기가요를 통해 국내 정식 데뷔했다. 이후 일본에 진출해 2010년 '소원을 말해봐'의 일본버전인 'Genie'를 선보였다. 이듬해 2011년 일본 첫 정규음반 'GIRLS' GENERATION'을 100만장 이상 판매하면서 한국 여성 음악그룹 중 최초로 밀리언셀러에 등극하는 성과를 거뒀다.

멤버 중 유리(본명 권유리)는 SM에서 주최한 청소년 베스트 선발대회에서 '댄스짱'에 선발된 뒤 2001년 SM엔터테인먼트


상지리츠빌9차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6-10

연습생으로 뽑혀 6년의 연습 기간을 거쳤다. 이후 소녀시대로 데뷔해 서브보컬을 담당하며 허스키한 음색과 부드러운 저음으로 팬들 사이에서는 숨은 보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07년에는 시트콤 '못 말리는 결혼'을 통해 배우로 나섰다. 그러나 배우로서 아이돌 이미지를 넘지 못했다는 아쉬운 평을 받았다. 이후 혹독한 연기 연습을 거듭한 끝에 2012년 드라마 '패션왕'에서 안정적인 연기로 SBS연기대상에서 뉴스타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2013년에는 영화 '노브레싱'에 첫 스크린 주연으로 출연해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여자 인기상을 수상했다. 또한 데뷔 12년만인 2019년, 첫 출연 연극 '앙리 할아버지와 나'에서 대학생 '콘스탄스'역을 맡아 연극배우로서도 호평을 받았다.

유리는 이외에도 드라마 '동네의 영웅'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에' '피고인' '대장금이 보고 있다' '마음의 소리 리부트' '보쌈-운명을 훔치다' 등과 영화 '꽃미남 연쇄 테러사건' 'I AM. (아이엠)' 등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면서 대세 배우로 거듭났다.

특히 '보쌈-운명을 훔치다'에서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MBN 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 기록을 이끌었다.

올해 2월 종영된 MBC 예능 '방과후 설렘'에서 담임선생님으로 출연해 연습생들이 보컬, 발성 등 음악적 역량을 키우며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는 프로듀서 역할을 맡았다.

탄탄한 내공과 세심한 시선으로 선배이자 멘토로서 어디에서도 배우지 못할 특급 노하우를 전수하며 연습생들의 성장에 일조했다.

한편 올해로 데뷔 15주년을 맞은 소녀시대는 올해 8월, 정규 6집 '홀리데이 나이트'(2017년 8월 발매) 후 약 5년 만에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소녀시대가 올해로 데뷔 15주년을 맞아 새 앨범(정규 7집)을 8월 중 발매할 예정"이며 "8명의 멤버가 모두 함께하는 완전체 앨범으로 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데뷔 15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방송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그중 5일 오후 9시 첫 방송되는 JTBC '소시탐탐'에 관심이 쏠린다.

'탐'나는 매력을 지닌 그룹 소녀시대가 다채로운 예능 세계를 '탐'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유리를 포함한 멤버들은 리얼리티, 게임쇼,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를 경험해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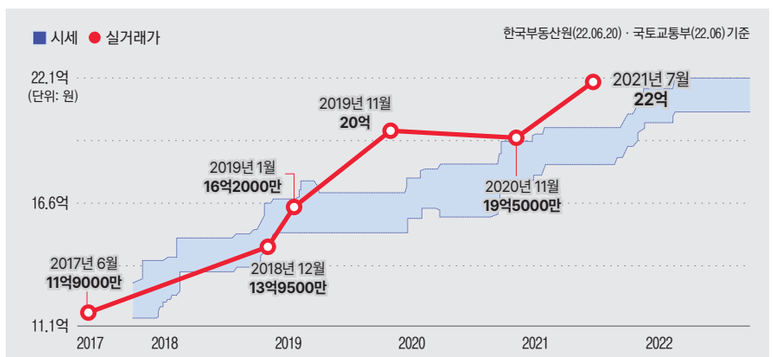
앞서 공개된 '소시탐탐' 첫 티저 영상에서는 인기 영화 '써니'의 맞짱대결 장면을 패러디해 흥미를 이끌었다.

다가오는 한여름, 유리의 '소녀시대' 완전체 활동과 내일 첫 방송되는 '소시탐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 기대된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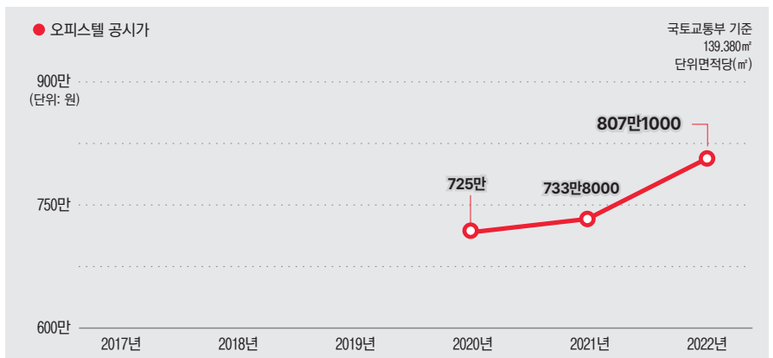
청담삼성래미안3차

서울 강남구 청담동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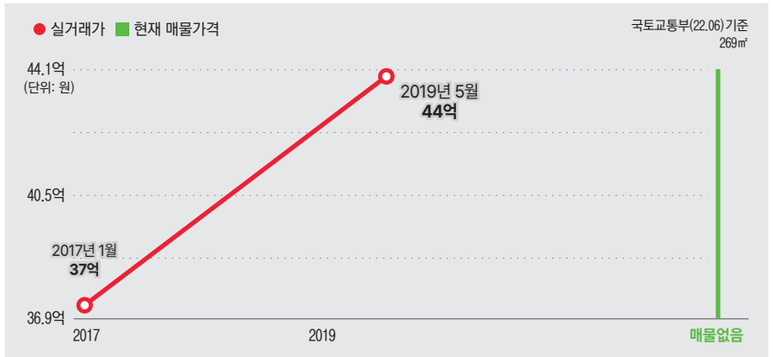
아노블리81

서울 강남구 청담동 91-2



연세리버테라스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2



편상훈

전)울산대 행정학전공 교수



편상훈 전 울산대 사회과학부 행정학전공 교수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울산광역시 지방분권 정책자문 전문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내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효율화 방안 제안과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행정사무감사제도 개선, 지방의회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울산 북구 21세기 기본계획, 울산 남구 남구비전 2021, 울산 중구 비전 2030 수립 등 지방자치제도 선진화에 기여했다. 정부와 연구기관의 지방자치 자문·심의·평가위원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4년 제2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또한 울산대 정책대학원장 시절 대학원 내 문화예술 석사과정 신설과 관련해 "문화예술정책과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원

현)한화생명보험 CDSO 부사장



김동원 한화생명보험 최고디지털전략책임자(CDSO) 부사장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미국 세인트폴고를 나와 예일대 동아시아학과를 졸업했다. 2014년 3월 그룹 종합 건자재 기업 한화L&C 평사원으로 입사해 이듬해 한화생명 전사 혁신실 부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6년에는 한화생명의 디지털혁신을 통한 미래 신사업 창출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상무로 승진했다. 2018년 말 미래혁신부를 맡아 한화그룹 금융계열사의 미래사업을 진두지휘하며 해외사업과 미래혁신사업 등을 총괄했다. 2019년 8월 한화생명 CDSO, 2020년 11월 연말 임원인사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2021년 1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전략부문장에 올랐으나 9월 물러났다. 2021년 7월 한화생명이 임원직제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하면서 직함이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변경됐다.



강석대

현)우양기건 대표이사



강석대 우양기건 대표이사는 단국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공과대 최고산업전략과정을 수료했다. 1974년 설립한 우양기건은 고성능 BLDC FFU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국내 크린룸 시장의 판도를 고품질과 저가격 체제로 전환시켰다. 이를 토대로 우양기건은 LG건설의 대표적 우수협력업체로 자리 잡았으며 LG 반도체 공장과 LG필립스 공장의 장비 전체는 물론 모든 기계 시설물들을 운전, 관리했다. 그 결과 LG로부터 다수의 상패를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양기건은 국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시공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여러 기관에서 다수의 표창 등을 수상했으며 2004년 은탑산업훈장, 2010년 '건설의 날' 행사에서 산업부문 최고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노량진역 일대, 여의도~용산 잇는 한강변 대표 복합도시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시는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1일부터 14일까지 주민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한강대교 남단(동작구 노량진동 2-3번지 일원) 약 17만㎡에 달하는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다. 저이용되고 있는 노량진역과 대규모 유휴부지인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수도자재센터 등이 포함된다.

이 일대는 여의도, 용산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입지적 장점에도 철도와 도로로 단절돼 있어 오랜시간 고립되고 토지 활용도도 낮은 상황이다. 수산시장 이전 이후 남은 옛 수산시장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등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옛 노량진 수산시장 부지 민간개발과 연계해 노량진 일대를 경제활동과 주거, 문화까지 한



한강철도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위치도. 서울시

번에 누릴 수 있는 한강변 대표 복합도시로 계획하고 있다.

지상철도로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노량진역은 철도 상부에 덱을 깔고 주거, 상업, 여가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입체적·복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노량진 수산시장과의 공간적·기능적 연계를 통해 일대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수변테라스, 카페, 쉼터 등 편의시설과 수변문화복합시설, 노량진만의 특색을 담은 워터프론트 같은 한강변의 매력을 느끼는 명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는 사전협상 방식으로 추진한다. 수산시장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설계안으로 복합용도 및 수변복합문화 거점으로 조성을 유도하고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노량진역 일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2주간의 주민 열람공고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는 올 연말 사전협상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관련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 안정적 주택공급환경 조성 목표

전국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현장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 안정적 주택공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분양가 설정을 통해 이러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HUG는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분양보증 리스크가 적정수준으로 관리될 뿐만 아니라 적정가격 수준의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차례 제도개선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최근 원자잿값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을 실시했다.



심사규정 주요 개선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심사기준 합리화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 준공 10년 內 사업장 우선 조사 – 준공 후 20년 內 사업장 전수조사에서, 준공 10년 內 사업장 평균 시세 우선 조사로 변경 * 그 외 선정기준(100세대 이상 등)은 개선 전과 동일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 단기 자재비 급등 시 일부 반영 – 평균 상승분을 초과한 자재비 급등이 있는 경우, 고분양가 심사에 일부 반영
심사 절차 간소화	정비사업비대출보증 심사 절차 간소화	• 정비사업비대출보증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 생략 – 관리처분인가와 분양보증 발급의 시차를 고려하여 정비사업비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 생략
예측가능성 제고	심사 세부 기준 공개범위 확대	• 심사 세부 기준 전부 공개 – 각 심사평점표 항목별 세부 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 이의신청 요건 충족 시, 심사내역 공개 – 선정한 비교사업장, 평가한 인근시세 등 공개

이번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보면 과거에는 인근시세 산정 시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했으나 개선 후에는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최근 원자잿값 급등 등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한 주택공급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설했다. 분양보증 시점 분상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심사상한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다. 금번 제도 시행부터 다음 정기고시인 9월까지의 가산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정비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비대출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시 2회 고분양가 심사하던 것을 분양보증 발급시 1회만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보증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주택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 및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을 전체 공개한다.

또한 심사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와 확인 절차를 마련하며 이의신청에 따른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을 접수한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